



동우컴퍼니

함께 (together)

영국이 브렉시트(EU탈퇴)를 결정하면서 유럽은 물론 세계 경제가 출렁이고 있다. 왜 영국민들은 브렉시트를 결정했을까? 여러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국가분담금에 대한 부담이다. EU연합조약으로 인해 유럽연합국 중 잘 사는 나라는 못 사는 나라에 대한 경제 지원금을 내야 하는데, 영국이 독일 다음으로 분담금이 많아 그것이 불만이었던 것이다. 그 분담금으로 자국민을 위한다면 좋겠다는 생각에서였다. 여기에 시리아 난민 문제도 있다. EU에서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난민을 수용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난민들이 자기들이 낸 세금으로 편히 먹고 노는 것에 대해 불만이 컸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영국은 어떤가? 자충수를 뒀다는 느낌이 강하지 않은가.

영국의 사태를 보자니 잠언의 말씀이 생각난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곤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잠18:1).

동물의 세계를 보면 맹수의 밥이 되는 것은 100% 무리에서 이탈된 것들이다. 그렇다. 이 세상은 나 홀로 살 수 없다. 협력의 구도를 이루며 함께 가야 한다. 그것이 남을 위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결국 나를 위한 것이다.

“꼭 교회에 가야 하나? 혼자서 기도생활 잘 하면 되지 않나?”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무리에서 이탈한 양인지라 이미 마귀의 표적이 된 것이다. 유럽 교회가 왜 박물관이 되었는가? 모이기를 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은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10:25)고 말씀하신다.

밥도 혼자 먹으면 맛이 없고, 공부도 독학은 어려운 법이다. 멀리 갈 때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은 함께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결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전4:12).

와신상담(臥薪嘗膽), 곧 ‘쑤나무 위에서 잠을 자고 쓴 쓸개를 맛본다’는 뜻의 이 고사 성어는 중국 춘추전국시대, 오나라와 월나라 사이에 있었던 복수의 역사를 담고 있다. 전쟁의 쓰라린 패배의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쑤나무, 곧 뽕감용 나무 위에서 잠을 자는가 하면, 쓰디 쓴 쓸개를 씹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절치부심의 자세는 역전의 역사를 쓰고야 말았다.

우리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는 그야말로
일본과 북한이라는 두 적수를 두고 싸
우며 달려온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

어나지 못하는 실정이고, 한반도를 짓누르고 있는 핵문제는 일촉즉발의 위기를 넘나들고 있는 실정이다.

전쟁의 참상을 모르는 전후세대가 압도적인 오늘의 대한민국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일제 식민의 역사와 6·25 전쟁의 비극이다. 이 두 역사적 사건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힘이 었다. 그러나 오늘의 풍요 속에서 점차 역사의식이 희미해져가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나라가 힘이 없어서 온 겨레가 고통 받았던 역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역사를 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것이다. 결코 잊을 수 없는 역사가 숨 쉬는 그 자리에서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실 때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뜻이다. 우리는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남북 평화통일의 역사를 목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뜻을 확정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에 하셨다고 그 누가 증언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역사의



전쟁의 참상과 극복의 역사가 고스란히 간직되어있는 전쟁기념관
우리는 이곳에 모여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려 한다

다. 36년 일제 식민의 아픔은 어떻게든 일본을 넘어보려는 승부근성을 낳았고, 6·25 전쟁의 끔찍한 체험은 이후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 정말 한 손에는 총을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든 채 달리게 하였다.

대일관계의 역사적 문제는 여전히 일본의 역사 부정으로 인해 조금도 진전되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사이 놀라운 속도로 일본의 경제력을 따라잡아 과거의 열등감을 극복하였을 뿐 아니라 이제는 대등한 자세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을 키웠다.

북한과의 국력 격차는 이제 더 이상의 비교가 무의미할 만큼 현격한 차이로 앞서 버렸다. 북한 정권이 핵개발에 목을 매는 이유도 이런 차이에서 느끼는 위기감과 조바심이 큰 몫을 하리라고 본다. 그 결과 북한 동포들의 삶은 피폐한 상태를 벗

미래가 없는 민족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제6차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오는 10월 3일 오후 3시, 서울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개최하게 된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평화의 광장 양쪽 측면에는 6·25 참전 16개국의 국기가 유엔기와 함께 게양되어 있고, 각각 그 나라 말로 새겨진 추모비석이 세워져있다. 또한 평화의 광장 옆으로는 전쟁 당시 실제 전투에 투입되었던 전투기, 수송기, 탱크, 장갑차, 대포 등이 즐비하게 전시되어 있다. 심지어 2002년 서해 연평해전의 전함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다. 전시관에는 사진, 영상 등의 전쟁기록, 전사자 명단 등 그 당시의 아픈 기억들을 생생하게 되살려주고 있다. 바로 이 장소에서 우리가 남북의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성회를 개최하는

증인으로 우리 예수중심교단을 세우신 것이다.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전심을 다하여 이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성회에 적극 동참하여야 하는 이유이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남북관계가 경색되어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독재 권력의 말기적 증상을 보이고 있다. 인간의 힘과 능으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암흑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새벽이 가까운 징표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확실한 조짐이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이 어둠을 몰아내고 통일의 새아침, 평화통일의 새역사를 밝히는 희망의 불꽃이 되리라 확신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한번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이루는 믿음의 벅찬 역사를 써보자. **할렐루야!**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평화통일 기도성회

10월 3일 오후 3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겔36:16~38)

우리가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계속하는 이유

지난주일, 우리는 2014년 9월 8일에 있었던 서울시청 앞 평화통일 기도성회의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다시 봐도 장면 하나하나가 감격이고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보면서 생각이 깊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많고 많은 교단 중에서 지극히 작은 우리 교단에게 이 막중한 사명, 이 나라의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를 시키실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답을 찾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평화통일을 이루는데 우리 교단의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예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까닭은, 그 통일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것임을 알게 하시려고 그러신 것입니다. 국제정세나 북한의 자멸에 의한 외형적인 요건이 평화통일을 이룬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보 없는 경제성장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에스겔 36장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배역하고 패역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고, 이방나라의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사실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출애굽까지 시키셨는데 이유야 어찌 되었든 그들이 멸망에 이르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다시 세우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로가 되어서도 여전히 패역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두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찌라”(겔36:37), 이스라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 안 해도 이루어질 것이지만, 기도할 때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겔36:38)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길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도 그랬습니다. 이건 이미 약속된, 예정된 시나리오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시나리오를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녕히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

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사백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정할찌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창15:13~14). 그럼에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녕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출3:7~8)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이 예정된 바이나 백성들의 울부짖음, 곧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알게 되고 영광을 돌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 주겠다’



총회장 이초석 목사

고 몇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120문도가 기도할 때

성령이 불의 혀처럼 임하게 하셨습니다(행2). 이제 아셨습니까? 우리가 왜 계속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열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지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평화통일이 오면 다른 사람들과 우리의 감격은 많이 다를 것입니다. 대한의 모든 사람들이 기뻐 춤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하나 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준 자와 받은 자만이 아는 기쁨이 추가된다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아는 자만이 갖는 남다른 기쁨이 있습니다. 아담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돕겠다고 했을 때, 뒤돌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느헤미야의 감격은 하나님과 느헤미야만 아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통일이 되는 날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평화통일 기도성회가 그냥 매년 열리는 행사라니 생각하

지 말고, 진정으로 평화통일을 이루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기도한 것처럼 절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함께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큰마음’입니다. 품을 줄 아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물론 북한의 행위를 보자면 이런 마음을 갖기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등을 돌리면 통일의 길은 더욱 멀어집니다. 본시 힘 있는 자가 베

푸는 겁니다. 가진 자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고, 많이 배운 자가

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에 60년 만의 초고속 성장과 함께 주신 자유와 물질적 풍요는 그것으로 사랑을 나누고 베풀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눅2:14). 그런데 이 평화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서로 사랑해야 얻어지는 것입니다. 왜냐? 자고로 분쟁은 마귀가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이간질로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는 놈이 마귀입니다. 그러니 마귀를 대적하고 서로 사랑해야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분쟁하면 공멸합니다. 노사가 분쟁하면 기업에 해롭고, 여야가 분쟁, 분열하면 국가가 위태롭고, 부부가 분쟁하면 가정의 혼란이 아이들에게 바르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마12:25)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

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13:34)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즉 평화는 사랑과 인내가 낳는 자녀이며, 사랑 속에만 평화가 있고, 평화 속에만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고통과 아픔이 따르더라도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포용하는 자세만이 남북의 모든 갈등뿐만 아니라 인간사에 분출되고 있는 많은 갈등과 분쟁을 잠재울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진정한 큰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평화는 사랑과 인내의 자녀다 모든 일에는 때와 기한이 있다

10월 3일, 우리는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또 한 차례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갖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평화통일이 되는 날까지 우리는 이 기도성회를 계속할 것입니다. 이 나라의 평화통일은 분명 예정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평화통일이 되는 그 날, 우리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준 자와 받은 자만이 아는 기쁨과 환희 속에 빠져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분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 때 우리 함께 다시 평화통일 기도성회 영상을 봅시다. 아마 눈물 콧물 흘리며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귀한 사명을 허락하셨음에. 그리고 통일이 되면 김일성 광장에 가서 ‘평화통일 기념성회’를 합시다.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사론의 꽃이 만발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전화 한 통화로!



당신도 세계를
복음화 할 수 있다!

ARS 060-700-0688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때론 뜨겁게, 때론 차갑게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이는 헝가리에서 출생하여 유럽 전역에서 활동하며 두 세대에 걸쳐 독일 증권시장의 우상으로 군림했던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93세에 쓴, 사후에 출간된 최후의 역작 제목입니다. 그가 투자할 때 심각하게 고려한 것은 돈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자신의 결정이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는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투자행위는 ‘지적인 도전행위’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돈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갈망하는 그 어떤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돈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자 했으며, 이러한 태도야말로 투자자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고 말했습니다. 즉, 돈은 뜨겁게 사랑하되 차갑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벌어야 합니다. 대부분은 일상의 지출을 위해 돈을 벌기도 하지만, 단순히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 버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돈은 바닷물과 같다.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더 목마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또 몇몇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것 자체가 삶에 자극을 주기 때문이라고도 말합니다. “내가 투자를 해서 성공하면 단순히 돈을 벌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보다 올바르다는 것이 입증됐기 때문에 기쁜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백만장자는 ‘존경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부자’를 말합니다. 코스톨라니는 백만장자를,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바

를 행하는데 있어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코스톨라니는 단기간에 백만장자가 되는 방법으로 ‘유망한 사업 아이템’, ‘투자’ 등을 들었습니다. 그의 전문영역은 ‘투자’였습니다. 그는 투자자가 된다는 것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지적 행위이며,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필요하게 되는 정신적 체조라고도 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단순히 수익 때문에 투자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자기 자본을 경제에 대주는 셈이 됩니다. 노동한 대가로 ‘버는’ 돈과 달리 투자를 통해 ‘얻는’ 돈은 그 의미가 분명 다릅니다. 독일인들은 ‘돈을 얻는다’, 영국인들은 ‘돈을 수확한다’, 미국인들은 ‘돈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도 늘 ‘돈은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신8:18)고 하셨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고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전5:19)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면 돈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되지만, 돈을 지배하고 다스리면 돈은 응용하기에 적합한 ‘일만 선의 뿌리’가 되는 것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이미경

lmkwdf@hotmail.com

:: To Be Succeeded ::

경험, 성장을 위한 뿌리

“여러분, 모든 경험을 고민하며 대하면 그것이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재활용 기업 RE(RescueEarth)의 대표를 맡고 있는 신치호 씨가 2016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대학생 아카데미에서 이 시대를 사는 젊은이들에게 당부한 말이다. 학창 시절에는 문제아, 사회에서는 막노동과 고물상 운전수. 세상말로 ‘흙수저’ 출신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가 어떻게 지구 환경을 생각하고 생명을 귀히 여기는 한 기업의 대표가 될 수 있었을까? 신 대표는 자신이 겪은 거친 경험들을 불평으로 일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매순간을 돌아보며 성장의 기회로 삼았다고 고백한다.

사람은 경험을 통해 성장한다고 한다. 엄밀히 말하자면 경험에 대한 ‘반응’이 그 사람의 성장과 퇴보를 가른다.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질투를 받아 노예로 팔려간 것도 모자라, 타국에서도 성범죄자로 몰려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는 막말하며 불평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자포자기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묵묵히 성실했고, 총리가 된 다음 만난 형제들을 통 크게 품어주기까지 했다. 이렇듯 모진 경험조차도 성장과 성공의 발판으로 승

화시키는 태도는 남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삶으로 이끈다.

우리네 성장과 성숙의 과정은 때로는 대나무의 그것과 같다. 대나무는 4년째까지는 자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가, 5년째 되어서야 비로소 하루 1미터 가까이 쑥쑥 자라는 이른바 폭발적 성장(quantum leap)을 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성장의 근원이 무엇일까? 4년까지 얹히고설켜며 땅 속 깊이 뻗어나간 단단한 ‘뿌리내림’ 때문이다. 이와 같이 크고 작은 경험은 인생이라는 나무가 거센 비바람에도 쓰러지지 않고 유연하게 지탱할 수 있도록 받쳐주는 버팀목 역할을 한다.

내가 서있는 이 자리, 내가 하고 있는 이 역할에는 이유가 있다.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때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귀히 여기고, 전심전력하라. 깊게 뻗어 내린 경험의 잔뿌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때에, 당신 인생의 폭발적 성장을 반드시 도울 것이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딤후 4:15).

이국진

joyful_jina@hanmail.net

약속은 생명이다

중국의 역사가인 나필이 무명의 학자였을 때, 마을 산책을 하던 도중에 길에서 울고 있는 여자아이를 보았다. 나필이 왜 울고 있냐고 물어보자 여자 아이가 말하길 주인집에서 항아리를 빌려왔는데 넘어져서 항아리를 깨버렸다는 것이었다. 그 소녀는 항아리를 물어줄 돈이 없다며 우는 것이다. 나필은 동정심이 일어서 소녀에게 항아리 값을 주려고 했지만 나필도 가난한 학자였던 터라 품속에 충분한 돈이 없었다. 그래서 소녀에게 내일 이 시간에 오면 항아리 값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헤어졌다. 다음날 소녀에게 갈 준비를 하는 중에 심부름꾼이 와서 친구의 전갈을 들고 왔다. 후원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 지금 당장 오라는 이야기였다. 그 전갈을 듣고 나필은 오늘은 중요한 약속이 있으니 후원자와의 약속은 다른 날로 잡아달라고 전했다. 나필은 소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후원자와 만날 기회를 포기한 것이다. 후원자는 자신을 만나러

오지 않은 나필을 거만하다고 생각했었지만, 후에 사연을 듣고 신뢰가 깊어져 나필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다고 한다.

나는 사소한 약속을 잊어버리는 나쁜 버릇이 있다. 한번은 점심 약속을 하고 피곤한 나머지 계속 잠을 자느라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상대방을 기다리게 하고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하게 만든 적이 있다. 지금은 ‘약속은 생명’이라는 목사님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한다.

믿음과 신뢰는 약속을 잘 지키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한 약속은 결코 어긴 적이 없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던 성경 속의 사람들도 모두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다.

약속은 신뢰의 기본이다. 세상에 지키지 않아도 되는 약속은 없으니 약속에 신중하자.

김성일

cre8tor@naver.com



:: 사랑&행복 ::

최선이 만드는 감동

최근 성황리에 폐막된 제31회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은 전 세계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불굴의 의지로 최선을 다한 선수들을 보며 우리는 메달색의 희비를 넘어, 그들이 걸어온 스토리(이야기)에 주목하게 됩니다.

이번 올림픽에도 피땀 흘린 선수들의 여러 감동의 스토리가 전해졌지만, 그 중 양궁 2연패의 주인공 장혜진 선수가 기억에 남습니다. 첫 올림픽, 그리고 금메달. 운동선수로는 적지 않은 서툰이란 나이에 이른 쾌거였습니다. 그러나 올림픽이 개막되는 순간까지 언론은 장선수를 주목하지 않았고, 금메달을 따고서야 비로소 지난 시절 양궁천재라 불리는 동료들 속에서 서러운 눈물을 흘렸던 그녀의 삶을 조명했습니다. 장 선수는 자신은 양궁천재가 아니었기에 지난 10년간 ‘나는 왜 안 되느냐’며 힘든 시간을 겪기도 했지만, 최선을 다해 기다리고 인내한 결과, 보란 듯이 금메달을 쟁취하여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올림픽만 되면 선수들의 훈훈한 이야기가 우릴 기쁘게 하지만, 그들이 특별한 삶을 살아서 감동의 주인공이 된 것은 아닙니다. 남과 다를 바 없는 평범

한 시작이었지만, 주어진 일상을 소중히 여겨 최선을 다했더니 그들은 감동의 주인공이 되고, 우리에게 희망의 메신저가 된 것입니다. 최선만이 평범을 비범으로 바꾸는 답이 되는 셈입니다.

성경에 보면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비범한 삶을 산 믿음의 선전들이 많습니다. 국무총리가 된 요셉이나 다윗왕은 처음부터 비범한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보디발의 일개 집사였던 시절, 물매질을 하던 양치기였던 시절부터 처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삶을 소중히 여겨 최선을 다하였기에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시라 마침내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별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감동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어느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형편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달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셔서 우리의 삶을 높여 주시고, 나아가 주변사람에게 희망과 도전의 원천이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김고은

khjc77@hanmail.net

하나님이 뇌졸중을 고쳐주셨습니다



지난 7월 25일 월요일, 점심식사 중 갑자기 팔이 저리며 젓가락 사용이 어려웠습니다. 식사 후 오후 3~4시 경 병원을 찾았습니다. 두 시간 정도 검사를 받은 후 뇌졸중(중풍)이란 결과가 나왔고, 일주일 정도 입원해야 된다고 해서 수술을 마치고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깨어 일어나려고 하니 오른쪽 반이 움직이지 않았습니 다. 심지어 말까지 어눌하며 말을 더듬기까지 했습니다. 입원 일주일이란 것이 이제는 장담할 수 없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주일간 김포 고려병원에 있다가 한방병원이 좋다고 해서 인천 나사렛국제병원의

로 옮겨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6개월 정도는 입원치료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점점 마음이 불안하고 악화되는 과정에서 주일 4부 예배를 드리고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병원 측에 간곡히 부탁하여 기도원 집회에 참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첫 주 기도원 집회에 참석하였으나 팔은 완전히 마비되었고, 다리는 끌고 다니는 상태였으며, 말은 점점 더 어눌하여졌습니다. 저녁 예배 때 총회장 목사님께 안수를 받고 귀신을 쫓았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중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계속되는 집회 중에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주도 기도원 집회에 참석했는데, 둘째 주에는 팔을 위로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점점 상태가 좋아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주 집회 참석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느끼며 내 자신이 의심스러운 정도로 호전되었습니

다. 다시 또 총회장 목사님으로부터 안수 받고 팔도 마음대로 올리며 박수도 치면서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적 같은 놀라운 체험이었습니다. 집회를 마칠 때는 손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다리도 정상으로 돌아왔으며 말도 정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기도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동생과 번갈아 운전할 정도로 정상이 되었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지금까지 20여 년간 차량으로 봉사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더욱 더 성도들을 주님 모시듯, 또 장애우들을 보면 친절히 모실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맡겨주신 작은 사명, 제 힘이 다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총회장 목사님과 기도해주신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김포교구 장명구 안수집사

다. 죽는다고 발버둥쳤지만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를 때에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 습니다. 그리고 수도사가 이야기하기를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네. 자네가 살려고 발버둥친 것처럼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만날 수 있을 거라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Good News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따라 서울로 올라와서 주변사람들에게 들은 말이 기억 납니다. “공해 때문에 서울 하늘에서는 별을 볼 수가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서울생활을 하면서 그 때 들은 말 때문에 하늘에서 별을 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늦은 밤에 귀가를 하다가 우연히 바라본 하늘에서 별을 발견하고 얼마나 놀랍고 신기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없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만나기를 갈망하는 자들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수도사를 찾아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했습니다. 그 청년을 물가로 데려가 목에 물이 잘 때까지 들어가게 한 후에 갑자기 그 청년의 머리를 물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 Global Study ::

☞ 얼굴은 내면의 거울이라 성공하려면 표정관리 잘해라

Your face reflects your inner being. Manage your facial expressions if you want to succeed.

脸面是内心的镜子,想要成功,就要做好表情管理。

☞ 너는 품위와 품격 있는 그릇에 예절이란 음식을 팔라

Sell dignity in a classy dish with etiquette.

要在有品位和品格的器皿上,盛上"礼节"这个饮食来卖。

녹내장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60세 이고도씨는 눈이 터질 듯이 아파 눈에 압력이 오르는 것 같은 느낌으로 병원을 찾았다. 안과에서 안압 측정. 각막두께 검사, 시신경 검사 등을 하고 녹내장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혈관에 혈압이 있듯이 공 모양을 하고 있는 눈의 압력을 안압이라고 한다. 안압이 너무 낮으면 안구 자체가 작아지는 안구 위축이 올 수 있고 너무 높으면 시신경이 손상 받게 된다. 안압은 주로 방수에 의해 결정된다. 방수는 눈 안에서 만들어 지는 물을 말하며 눈의 형태를 유지하고 눈 내부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방수는 홍채 뒤쪽에 있는 모양체라는 조직에서 매일 조금씩 생성되며 생성된 양만큼 순환을 통해 눈 외부로 배출되는 흐름을 갖는다. 방수가 너무 많이 생성되거나 흐름에 장애가 생

겨 배출이 적어질 경우 눈 내부의 압력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면 안압이 상승되고 상승된 안압이 시신경에 손상을 주어 시야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데 이를 녹내장이라 한다. 녹내장은 예방 혹은 조기진단, 조기치료가 중요한데 치료받지 않거나 진단이 너무 늦어지는 경우 시야 결손이 커져 결국 실명에 이를 수 있다. 녹내장은 크게 급성과 만성으로 나뉘지는데 급성 녹내장은 안압이 급속도로 높아지면서 시력감소, 두통, 구토, 충혈 등의 증상이 생긴다. 만성 녹내장은 시신경이 서서히 파괴되므로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다가 시야가 좁아지는 말기에 이르러 답답하다고 느끼며 더 진행되면 실명에 이르게 된다. 치료원칙은 약물요법이다. 안압을 내리는 안약을 점안하고

필요시 홍채에 레이저를 이용하여 작은 구멍을 뚫어 방수의 순환 및 배출을 돕는다. 약물이나 레이저 치료로도 안압이 조절이 안 될 때는 녹내장 수술을 시행하게 된다. 평소 생활습관으로 목이 조이는 넥타이나 복장, 머리로 피가 몰리는 물구나무서기 자세는 피하는 것이 좋고, 담배는 혈관 수축효과로 시신경의 혈액순환에 나쁘다. 스트레스를 피하고 혈액순환에 좋은 음식과 항산화 기능을 가진 야채나 과일이 도움이 된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마6:22-23).

Dr. 조희경
pearl9230@naver.com

인내(忍耐)

동경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학생이 세계적인 기업인 마쓰시다에 지원했습니다. 아무리 입사하기가 어려운 회사라고 해도 일본 최고의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으니 이 학생은 당연히 합격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최종합격자 명단에는 그 학생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 학생은 수치심과 분노를 참지 못하여 다량의 수면제를 먹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죽은 다음날, 마쓰시다 인사부로부터 전보가 한 통 날아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은 수석 합격자인데 전산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합격자 명단에 빠졌습니다. 늦었지만 수석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참 기가 막힌 노릇이었습니다. 애꿎은 전산을 탓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 학생의 소식을 전해들은 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장은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그 청년에게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 학생을 채용하지 않게 된 것은 우리 회사로는 큰 행운입니다.”

고노스케 회장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한 번 낙방한 것을 이기지 못하고 목숨을 끊는 자라면 회사에서의 수많은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내(忍耐),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내 없이 단 열매를 딸 수 없습니다. 위대한 성과는 힘이 아닌 인내의 결과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린 자만이 단 열매를 따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약1:4). 욥, 요셉은 인내함으로 복을 받았지만, 사울은 오래 참지 못하여 저주를 받았습니다. 참을 인(忍)자 세 개면 못 이룰 게 없습니다.

예수증심편집실

대화의 기술은
리더십의 언어이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야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니라
(잠언 25장 11절)